

개요  
글로벌  
혁신지수  
2022



협력사



학술 네트워크



글로벌 혁신지수(GII)는 모든 발전 단계의 국가들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GII는 참조 가이드를 넘어, 혁신 친화적 정책의 수립과 개발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렌 탕(Daren Tan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 한눈에 보는 GII 2022

글로벌 혁신지수 2022는 132개 국가의 혁신 생태계 성과를 포착해 최신 글로벌 혁신 트렌드를 추적한다.

# 2022년 글로벌 혁신 선도국

## 지역별 혁신국가 상위 3개국

### 중남미

1. 칠레
2. 브라질 ☆
3. 멕시코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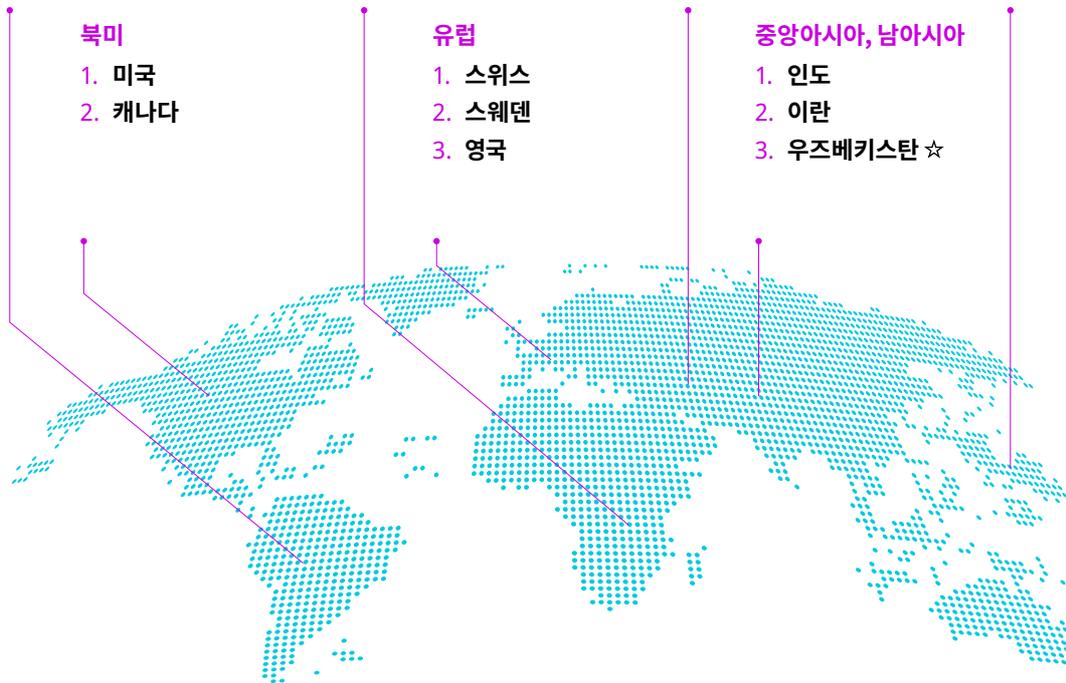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보츠와나 ☆
3. 케냐 ↓

###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1. 이스라엘
2. 아랍에미리트
3. 튀르키예

###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1. 대한민국
2. 싱가포르
3. 중국



☆ 는 2022년 상위 3위권 국가로의 신규 진입을 나타냄.

↑↓ 는 2021년 대비 상위 3위권 내의 순위 이동(상승 또는 하락)을 나타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상위 3개국(도서국 제외). 이 지역 상위 4개국(도서국 포함): 모리셔스(1위), 남아프리카공화국(2위), 보츠와나(3위), 케냐(4위).

†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의 상위 3개국(도서국 제외). 이 지역 상위 4개국(도서국 포함): 이스라엘(1위), 키프로스(2위), 아랍에미리트(3위), 튀르키예(4위).

## 소득 그룹별 혁신국가 상위 3개국

### 고소득

1. 스위스
2. 미국 ↑
3. 스웨덴 ↓

### 중상위소득

1. 중국
2. 불가리아
3. 말레이시아

### 중하위소득

1. 인도 ↑
2. 베트남 ↓
3. 이란 ☆

### 저소득

1. 르완다
2. 마다가스카르 ☆
3. 에티오피아 ☆

출처: 글로벌 혁신지수 데이터베이스, WIPO, 2022.

비고: 세계은행 소득 그룹 분류(2021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GII 순위 변동은 성과 및 방법론적 고려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음. 일부 국가의 데이터는 불완전함(부록 I 참조).

# 글로벌 혁신지수 2022 순위

GII 순위	국가	점수	소득 그룹 순위	지역 순위	GII 순위	국가	점수	소득 그룹 순위	지역 순위
1	스위스	64.6	1	1	67	모로코	28.8	6	8
2	미국	61.8	2	1	68	코스타리카	28.7	18	7
3	스웨덴	61.6	3	2	69	아르헨티나	28.6	19	8
4	영국	59.7	4	3	7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8.5	20	37
5	네덜란드	58.0	5	4	71	몽골	28.0	7	12
6	대한민국	57.8	6	1	72	바레인	28.0	45	9
7	싱가포르	57.3	7	2	73	튀니지	27.9	8	10
8	독일	57.2	8	5	74	조지아	27.9	21	11
9	핀란드	56.9	9	6	75	인도네시아	27.9	9	13
10	덴마크	55.9	10	7	76	자메이카	27.7	22	9
11	중국	55.3	1	3	77	벨라루스	27.5	23	38
12	프랑스	55.0	11	8	78	요르단	27.4	24	12
13	일본	53.6	12	4	79	오만	26.8	46	13
14	홍콩(중국)	51.8	13	5	80	아르메니아	26.6	25	14
15	캐나다	50.8	14	2	81	파나마	25.7	26	10
16	이스라엘	50.2	15	1	82	우즈베키스탄	25.3	10	3
17	오스트리아	50.2	16	9	83	카자흐스탄	24.7	27	4
18	에스토니아	50.2	17	10	84	알바니아	24.4	28	39
19	룩셈부르크	49.8	18	11	85	스리랑카	24.2	11	5
20	아이슬란드	49.5	19	12	86	보츠와나	23.9	29	3
21	몰타	49.2	20	13	87	파키스탄	23.0	12	6
22	노르웨이	48.8	21	14	88	케냐	22.7	13	4
23	아일랜드	48.5	22	15	89	이집트	22.7	14	15
24	뉴질랜드	47.2	23	6	90	도미니카공화국	22.7	30	11
25	호주	47.1	24	7	91	파라과이	22.7	31	12
26	벨기에	46.9	25	16	92	브루나이 다루살람	22.2	47	14
27	키프로스	46.2	26	2	93	아제르바이잔	21.5	32	16
28	이탈리아	46.1	27	17	94	키르기스스탄	21.1	15	7
29	스페인	44.6	28	18	95	가나	20.8	16	5
30	체코	42.8	29	19	96	나미비아	20.6	33	6
31	아랍에미리트	42.1	30	3	97	캄보디아	20.5	17	15
32	포르투갈	42.1	31	20	98	에콰도르	20.3	34	13
33	슬로베니아	40.6	32	21	99	세네갈	19.9	18	7
34	헝가리	39.8	33	22	100	엘살바도르	19.9	19	14
35	불가리아	39.5	2	23	101	트리니다드 토바고	19.8	48	15
36	말레이시아	38.7	3	8	102	방글라데시	19.7	20	8
37	튀르키예	38.1	4	4	103	탄자니아	19.4	21	8
38	폴란드	37.5	34	24	104	타지키스탄	18.8	22	9
39	리투아니아	37.3	35	25	105	르완다	18.7	1	9
40	인도	36.6	1	1	106	마다가스카르	18.6	2	10
41	라트비아	36.5	36	26	107	짐바브웨	18.1	23	11
42	크로아티아	35.6	37	27	108	니카라과	18.1	24	16
43	태국	34.9	5	9	109	코트디부아르	17.8	25	12
44	그리스	34.5	38	28	110	과테말라	17.8	35	17
45	모리셔스	34.4	6	1	111	네팔	17.6	26	10
46	슬로바키아	34.3	39	29	112	라오스	17.4	27	16
47	러시아	34.3	7	30	113	온두라스	17.3	28	18
48	베트남	34.2	2	10	114	나이지리아	16.9	29	13
49	루마니아	34.1	8	31	115	알제리	16.7	30	17
50	칠레	34.0	40	1	116	미얀마	16.4	31	17
51	사우디아라비아	33.4	41	5	117	에티오피아	16.3	3	14
52	카타르	32.9	42	6	118	잠비아	15.8	32	15
53	이란	32.9	3	2	119	우간다	15.7	4	16
54	브라질	32.5	9	2	120	부르키나파소	15.3	5	17
55	세르비아	32.3	10	32	121	카메룬	15.1	33	18
56	몰도바	31.1	11	33	122	토고	15.1	6	19
57	우크라이나	31.0	4	34	123	모잠비크	15.0	7	20
58	멕시코	31.0	12	3	124	베냉	14.6	34	21
59	필리핀	30.7	5	11	125	니제르	14.6	8	22
60	몬테네그로	30.3	13	35	126	말리	14.2	9	23
61	남아프리카공화국	29.8	14	2	127	앙골라	13.9	35	24
62	쿠웨이트	29.2	43	7	128	예멘	13.8	10	18
63	콜롬비아	29.2	15	4	129	모리타니	12.4	36	25
64	우루과이	29.2	44	5	130	부룬디	12.3	11	26
65	페루	29.1	16	6	131	이라크	11.9	36	19
66	북마케도니아	28.8	17	36	132	기니	11.6	12	27

■ 고소득  
■ 중상위소득  
■ 중하위소득  
■ 저소득

■ 유럽  
■ 북미  
■ 중남미

■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처: 글로벌 혁신지수 데이터베이스, WIPO, 2022.

비고: 분류 관련 설명은 국가별 개요(Economy Profiles) 비고 1 참조.

# 2022년 소득 수준별 혁신 성과

	고소득 그룹	중상위소득 그룹	중하위소득 그룹	저소득 그룹
발전수준 대비 기대 이상의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위스</li> <li>미국</li> <li>스웨덴</li> <li>영국</li> <li>네덜란드</li> <li>대한민국</li> <li>싱가포르</li> <li>독일</li> <li>핀란드</li> <li>덴마크</li> <li>프랑스</li> <li>일본</li> <li>홍콩(중국)</li> <li>캐나다</li> <li>이스라엘</li> <li>오스트리아</li> <li>에스토니아</li> <li>룩셈부르크</li> <li>아이슬란드</li> <li>몰타</li> <li>노르웨이</li> <li>아일랜드</li> <li>뉴질랜드</li> <li>호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li> <li>불가리아</li> <li>태국</li> <li>브라질</li> <li>몰도바</li> <li>남아프리카공화국</li> <li>페루</li> <li>자메이카</li> <li>요르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li> <li>베트남</li> <li>이란</li> <li>우크라이나</li> <li>필리핀</li> <li>모로코</li> <li>몽골</li> <li>튀니지</li> <li>인도네시아</li> <li>우즈베키스탄</li> <li>파키스탄</li> <li>케냐</li> <li>탄자니아</li> <li>짐바브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르완다</li> <li>마다가스카르</li> <li>모잠비크</li> <li>부룬디</li> </ul>
발전수준과 일치하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벨기에</li> <li>키프로스</li> <li>이탈리아</li> <li>스페인</li> <li>체코</li> <li>포르투갈</li> <li>슬로베니아</li> <li>헝가리</li> <li>폴란드</li> <li>라트비아</li> <li>크로아티아</li> <li>칠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레이시아</li> <li>튀르키예</li> <li>모리셔스</li> <li>러시아</li> <li>세르비아</li> <li>멕시코</li> <li>몬테네그로</li> <li>콜롬비아</li> <li>북마케도니아</li> <li>코스타리카</li> <li>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li> <li>조지아</li> <li>아르메니아</li> <li>알바니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리랑카</li> <li>키르기스스탄</li> <li>가나</li> <li>캄보디아</li> <li>세네갈</li> <li>방글라데시</li> <li>타지키스탄</li> <li>네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티오피아</li> <li>우간다</li> <li>부르키나파소</li> <li>토고</li> <li>니제르</li> <li>예멘</li> </ul>
그 외 모든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랍에미리트</li> <li>리투아니아</li> <li>그리스</li> <li>슬로바키아</li> <li>사우디아라비아</li> <li>카타르</li> <li>쿠웨이트</li> <li>우루과이</li> <li>바레인</li> <li>오만</li> <li>브루나이 다루살람</li> <li>트리니다드 토바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루마니아</li> <li>아르헨티나</li> <li>벨라루스</li> <li>파나마</li> <li>카자흐스탄</li> <li>보츠와나</li> <li>도미니카공화국</li> <li>파라과이</li> <li>아제르바이잔</li> <li>나미비아</li> <li>에콰도르</li> <li>과테말라</li> <li>이라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집트</li> <li>엘살바도르</li> <li>니카라과</li> <li>코트디부아르</li> <li>라오스</li> <li>온두라스</li> <li>나이지리아</li> <li>알제리</li> <li>미얀마</li> <li>잠비아</li> <li>카메룬</li> <li>베냉</li> <li>앙골라</li> <li>모리타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리</li> <li>기니</li> </ul>

# 글로벌 혁신 추적지표 대시보드

## 과학 및 혁신 투자

	과학 출판물	R&D 지출			국제 특허출원	벤처캐피탈 거래	벤처캐피탈 가치
		전체	기업	상위 R&D 투자 기업			
단기	<b>8.3%</b> 2020 → 2021	<b>3.3%</b> 2019 → 2020	<b>3.5%</b> 2019 → 2020	<b>9.8%</b> 2020 → 2021	<b>0.9%</b> 2020 → 2021	<b>46.0%</b> 2020 → 2021	<b>125.5%</b> 2020 → 2021
장기	<b>5.7%</b> 2011 → 2021 (연간 성장률)	<b>4.6%</b> 2010 → 2020 (연간 성장률)	<b>5.5%</b> 2010 → 2020 (연간 성장률)	해당 없음	<b>4.3%</b> 2011 → 2021 (연간 성장률)	<b>7.3%</b> 2011 → 2021 (연간 성장률)	<b>23.6%</b> 2011 → 2021 (연간 성장률)

## 기술 진보

	마이크로칩 트랜지스터 수	전기 배터리 가격	재생 에너지 비용		의약품 승인
			태양광 발전	풍력	
단기	<b>21.4%</b> 2019 → 2021	<b>-5.7%</b> 2020 → 2021	<b>-7.0%</b> 2019 → 2020	<b>-12.5%</b> 2019 → 2020	<b>-5.7%</b> 2020 → 2021
장기	<b>36.5%</b> 2011 → 2021 (연간 성장률)	<b>-17.9%</b> 2011 → 2021 (연간 성장률)	<b>-17.3%</b> 2010 → 2020 (연간 성장률)	<b>-7.5%</b> 2010 → 2020 (연간 성장률)	<b>5.2%</b> 2011 → 2021 (연간 성장률)

## 기술 채택

	광대역			
	고정형	이동형	로봇 및 자동화	전기 자동차
단기	<b>5.7%</b> 2020 → 2021	<b>7.6%</b> 2020 → 2021	<b>10.4%</b> 2019 → 2020	<b>61.1%</b> 2020 → 2021
장기	<b>6.9%</b> 2011 → 2021 (연간 성장률)	<b>17.3%</b> 2011 → 2021 (연간 성장률)	<b>11.0%</b> 2010 → 2020 (연간 성장률)	<b>74.0%</b> 2011 → 2021 (연간 성장률)
보급	<b>16.7</b> 인구 100명 중 2021년(2020년 15.8명)	<b>83.2</b> 인구 100명 중 2021년(2020년 77.3명)	해당 없음	<b>1.4</b> 차량 100대 중 2021년(2020년 0.8대)

## 사회경제적 영향

	노동 생산성	기대 수명	이산화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
단기	<b>0.0%</b> 2020 → 2021	<b>-0.02%</b> 2019 → 2020	<b>-5.2%</b> 2019 → 2020	<b>4.9%*</b> 2020 → 2021
장기	<b>2.3%</b> 2011 → 2021 (연간 성장률)	<b>0.3%</b> 2010 → 2020 (연간 성장률)	<b>0.4%</b> 2010 → 2020 (연간 성장률)	

비고: 각 지표에 대한 정의 및 데이터 출처는 본 섹션 끝 부분의 데이터별 비교 참고. 장기 연간 성장률은 표기된 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을 나타냄. 과거 데이터는 업데이트되어 전년도 글로벌 혁신 추적지표(Global Innovation Tracker)와 다를 수 있음. \*는 추정치를 나타냄.

## 주요 시사점

GII 2022는 계속되는 팬데믹, 생산성 성장 둔화, 그리고 발전하는 기타 도전 과제들을 배경으로 글로벌 혁신 트렌드를 추적한다.

### 격동기의 혁신 상황

1. 혁신 투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절정기에 크게 증가하여 2021년에 호황기를 맞았다. 그러나 전 세계가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면서, 2022년에도 탄력적인 혁신 투자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과거 데이터와 세계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해, 2020년과 2021년에 연구개발(R&D), 지식재산(IP) 출원 및 벤처캐피탈 분야에 신속한 비용 삭감이 있으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과학 논문은 2021년 처음으로 2백만 건을 돌파했다.
- 2020년 글로벌 R&D 투자는 3.3% 증가해, 하락은 아니지만 사상 최고치인 2019년 6.1%의 성장률에 비해 둔화되었다.
- 2020년 상위 R&D 지출 국가의 정부 예산 배정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각국 정부가 혁신의 미래에 끼칠 위기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2021년 대한민국과 독일 정부의 R&D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과 미국 정부의 지출은 감소하는 등 국가별 R&D 예산은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 결과적으로, 상위 R&D 투자 기업들은 R&D 지출을 2020년에 11% 이상 증가시켰고, 2021년에는 10% 가까이 증가시켜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증가한 9,000억 달러(USD) 이상을 지출했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정보통신기술(ICT) 하드웨어 및 전기장치,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제약 및 생명공학, 그리고 건설 및 공업용 금속 분야 등 4개의 산업 분야에 의해 주도되었다. 자동차, 산업공학 및 운송, 그리고 여행 분야 등 2020년에 R&D 지출을 삭감한 기업들 또한 2021년에는 대부분 R&D 지출을 다시 늘렸다.
- IP 출원 활동 또한 2020년과 2021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증가했고, 특히, 대표적인 기업 활동 측정 지표인 국제 상표 출원의 경우, 2021년에 15% 상승하여 강한 성장을 보였다.
- 가장 큰 붐은 벤처캐피탈(VC) 부문에서 일어났다. VC 거래는 2021년 46% 성장하여, 1990년대 후반에 일어난 인터넷 붐에 견줄 만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그 범위가 보다 넓어져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은 이 부문에서 (비록 낮은 기저에서였지만) 가장 강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VC 부문에 대한 2022년 전망은 밝지 않다. 긴축 통화 정책과 위험 자본의 파급 효과가 VC 부문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2. 기술 진보, 채택, 혁신의 사회경제적 영향 모두가 약세를 보이며 혁신 주도 성장의 미래가 위기에 봉착하다.

- 대표적인 혁신 측정 지표인 반도체 속도, 전기 배터리 가격, 재생 에너지 비용(풍력 제외) 및 미국에서의 의약품 승인 분야의 **기술 진보** 부문 지표들은 장기적인 추세로부터의 둔화를 보여 준다.
- 결과로, **기술 채택** 부문은 조사된 다양한 기술 분야,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성장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광대역을 제외하고 보급률은 아직도 중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대체적으로 코로나19의 단기적 영향으로 인해, **혁신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저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 영향의 모든 대표 지표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 생산성 성장률(시간 경과에 따라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활용하는 지표)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다. 거대한 침체(Great Stagnation)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혁신의 미래 성장 창출 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온다.
- 이러한 어두운 전망을 고려해 올해 GII 보고서는 “혁신주도 성장의 미래는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누가 옳은가?”라는 질문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생산성 저성장의 지속을 예견하는 혁신 비관론자들이 옳은가? 이들은 지난 수 세기의 주요 발명(예를 들어, 전기)과 같이 생산성에 변혁적 영향을 가져올 혁신을 오늘날 찾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말한다. 아니면, 새로운 혁신으로 생산성 증가가 촉진되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는 혁신 낙관론자들이 옳은가?
- GII 2022는 낙관론자 관점에서 바라본 두 개의 새로운 혁신 물결에 희망을 걸고 있다.
  1. 그 중 하나는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광대한 생산성 효과를 불러오고 모든 분야의 기초 과학에 과학적 혁신을 달성하게 할,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및 자동화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시대 혁신 물결이다.
  2. 다른 하나는 4개 사회 필수 영역인 건강, 음식, 환경 및 이동성의 혁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생명공학, 나노기술, 신소재 및 기타 과학 분야의 중요 발견에 기반한 딥 사이언스(Deep Science) 혁신 물결이다.

이 새로운 물결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양한 장애물, 특히 기술 채택과 확산 영역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을 우선 극복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디지털 시대 및 딥 사이언스 혁신 물결이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각국 정부가 GII 2022 특별 주제 섹션에서 논의된 긴급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혁신 주도 생산성 성장이 높아지고, 이러한 성장이 우리의 안녕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 글로벌 혁신지수 2022 순위 결과

### 3. GII 상위 15위권에 몇 가지 주요 변화가 발생했다. 중국, 튀르키예와 인도가 글로벌 혁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일까?

- 스위스는 12년 연속으로 GII 2022에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2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 그 다음은 스웨덴이 차지하였고, 영국, 네덜란드, 대한민국이 그 뒤를 차례로 따르고 있다.
- 중국이 프랑스를 추월하여 11위에 올랐는데, 현재 GII 상위 30개국 내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유일한 중간소득 국가이다. 튀르키예가 빠르게 더욱 발전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중간소득 국가 중 중국의 독보적인 순위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 캐나다는 15위로 상승해, 상위 15개 글로벌 혁신국에 다시 진입했다.
-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SEAO) 지역은 북미 및 유럽 지역과 혁신 격차를 줄이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SEO 지역은 2개국이 상위 10개 글로벌 혁신국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한민국(6위)과 싱가포르(7위로 순위 상승)이다.
- 튀르키예(37위)와 인도(40위)는 처음으로 상위 40개국에 진입했다.
- 중국과 인도 이외에, 베트남(48위), 이란(53위), 필리핀(59위)은 현재까지 가장 빠르게 최신 혁신을 따라잡고 있는 중간소득 국가다. 하지만, 베트남과 필리핀은 순위가 다소 하락해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75위)는 희망적인 혁신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다.
-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스라엘(16위), 아랍에미리트(31위, 상위 30개국에 근접), 튀르키예가 상위권 국가에 위치하고 있다.
- 인도, 이란, 그리고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82위)과 파키스탄(87위)이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을 선도하고 있다.
- 상위 50개국 내 유일한 중남미 국가인 칠레(50위)는 중남미 지역을 선도하고 있고, 그 뒤를 이 지역 상위 3개국에 새로 진입한 브라질(54위)이, 그 다음으로 멕시코(58위)가 따르고 있으며, 코스타리카(68위)는 이 지역 상위 3개국에서 밀려났다. 콜롬비아(63위), 페루(65위), 아르헨티나(69위), 도미니카공화국(90위)은 GII 2022에서 모두 큰 순위 상승을 보여 주었다.
- 모리셔스(45위)와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선도하고 있고, 이 지역 상위 3개국에 새로 진입한 보츠와나(86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다음으로 케냐(88위)가 뒤따른다. 모리셔스와 보츠와나 이외에도, 가나(95위), 나미비아(96위), 세네갈(99위), 짐바브웨(107위), 에티오피아(117위), 앙골라(127위)의 순위가 급상승했다.

### 4.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수준 대비 기대 이상의 혁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

- GII 2022에 따르면, 26개국이 자국의 발전 수준 대비 기대 이상의 혁신 성과를 나타냈고,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이 이 그룹에 새로 진입했다.
- 인도, 케냐, 몰도바, 베트남은 12년 연속 기대 이상의 성과를 기록했다.
- 우수 혁신 성과국 26개국 중 8개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로, 케냐, 르완다, 모잠비크가 이 지역을 선도한다.
- 중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 페루, 자메이카가 발전 수준 대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 5. 현재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수의 글로벌 상위 과학기술(S&T)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 2022년에도 지난 몇 년과 동일하게 상위 100개의 과학기술(S&T) 클러스터가 북미, 유럽, 아시아의 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
- 최고의 글로벌 S&T 클러스터는 도쿄-요코하마(일본)였으며, 그 뒤를 선전-홍콩-광저우(중국 및 홍콩(중국)), 베이징(중국), 서울(대한민국), 산호세-샌프란시스코(미국)가 따르고 있다.
- 영국의 케임브리지와 네덜란드·벨기에의 아인트호벤은 가장 S&T 집약적인 클러스터로 나타났고, 그 뒤를 대전(대한민국), 산호세-샌프란시스코(미국), 옥스포드(영국)가 뒤따르고 있다.
- 중국은 처음으로 미국과 같은 수의 상위 100 S&T 클러스터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뒤를 이어 독일이 쾰른과 뮌헨을 주축으로 10개 클러스터를, 일본이 도쿄-요코하마와 오사카-고베-교토를 필두로 5개의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 중국 이외의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상파울루(브라질), 벵갈루루, 델리, 뭄바이, 그리고 새롭게 진입한 첸나이(인도), 테헤란(이란), 이스탄불과 앙카라(튀르키예), 모스크바(러시아)가 유일하게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앙카라와 이스탄불(튀르키예), 뭄바이(인도)의 순위도 크게 상승했다.

- GII 2022에서는 혁신 상위 100개국 이외에도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소득 국가 중 아르헨티나, 이집트, 말레이시아, 멕시코, 태국은 각각 부에노스아이레스, 카이로, 쿠알라룸푸르, 멕시코 시티, 방콕에 S&T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멕시코 시티, 리우데자네이루, 포르투 알레그레, 산티아고 등의 눈에 띄는 중남미 도시 지역 역시 이 상위 글로벌 S&T 클러스터 확장 순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 GII 2022 결과

GII는 132개국의 혁신 성과에 순위를 매겨, 전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국가들을 발표한다.

다음은 **글로벌 혁신지수(GII) 2022**의 핵심 내용이다. 부록 I는, 특히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 전년 대비 GII 순위 비교와 관련해, GII 결과를 해석 및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 GII 2022 혁신 선도국

### 소수의 국가만이 지속적으로 최고 혁신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스위스는 12년 연속 GII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도 1). 미국은 스웨덴을 제치고 2위에 올랐고, GII 2022 혁신지표 81개 중 15개에서 최고 점수를 얻으며 계속해서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박스 1). 2016년 상위 10개국에 진입한 독일은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순위인 8위를 달성했다. 싱가포르의 7위로 복귀했다.

중국은 2022년 11위를 차지하며 상위 10위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상위 30개국 내 유일한 중간소득 국가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SEAO) 지역 내에서 계속 3위를, 중상위소득 그룹에서는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도 2, 표 1 참조). 캐나다(15위)는 2012년 상위 10개국 밖으로 밀려난 후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상위 15개국 내로 진입했다.

상위 25개국 중, 에스토니아(18위), 아랍에미리트(UAE)(31위)와 폴란드(38위)가 올해 눈에 띄는 진전을 보여 주었다.

중국을 제외하고, 중간소득 4개국만이 상위 40개 혁신국에 포함되었다. 불가리아(35위)와 말레이시아(36위)는 2021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고, 튀르키예와 인도는 각각 37위와 40위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40개국에 진입했다. 인도는 베트남(48위)을 제치고 중하위소득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칠레(50위)는 2018년 이래 최고의 순위로 상위 50개국에 재진입하여 중남미 지역에서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했다. 브라질(54위)은 멕시코(58위)를 제치고 이 지역 2위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지역 상위 3개국에 들었고, 따라서 멕시코는 2022년 이 지역 3위로 떨어지고 전체 순위로는 3계단 하락했다. 다음으로, 코스타리카 역시 2022년 12계단 하락한 전체 68위로, 이 지역의 상위 3개국에서 벗어났다. 이 지역에서 그 밖의 주목할 만한 순위 상승 국가는 콜롬비아(63위), 페루(65위), 아르헨티나(69위), 도미니카공화국(90위)이다. 페루는 올해 소액금융기관 대출 가용성(1위), 이공계 졸업생(18위), 실용신안(22위) 부문의 지표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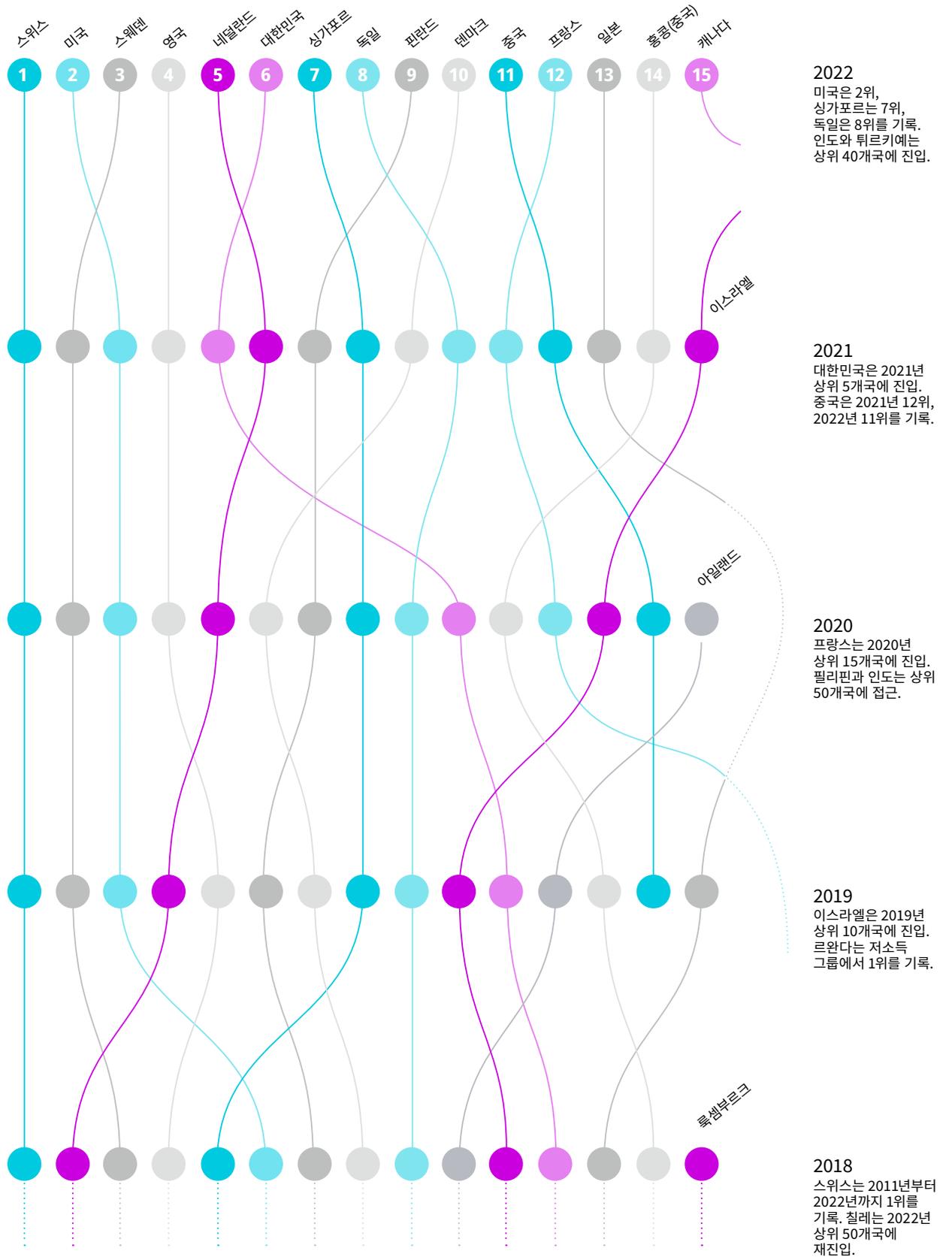
이란은 53위를 차지하며 순위가 크게 상승했고, 중하위소득 그룹 중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는 75위로 순위가 급상승해, 2022년 상위 80개국 내로 진입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보다 향상된 데이터 가용성으로 2020년 GII에 재진입하였고,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하면서 2022년에는 82위를 차지하며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CSA) 지역 상위 3개국에 자리했다.

파키스탄은 87위로 상위 90개국에 진입하면서 GII 2022 순위에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 주었다.

올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은 발전 수준 대비 기대 이상의 혁신 성과를 달성하여 처음으로 혁신 달성국(Innovation Achievers) 그룹에 진입했다(표 2, 도 3 참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5개국 중 16개국의 순위가 상승했다. 보츠와나는 86위로 가장 큰 도약을 이루면서 이 지역 상위 3개국에 속한 케냐(88위)를 추월했다. 이 지역의 그 밖의 주목할 만한 순위 상승국은 모리셔스(45위), 가나(95위), 나미비아(96위), 세네갈(99위)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6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도 1 2018년-2022년 GII 상위 10개국 순위 변동



출처: 글로벌 혁신지수 데이터베이스, WIPO, 2022.  
비고: 연도별 GII 순위 비교는 GII 모델과 데이터 가용성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음.

## 도2 2022년 글로벌 혁신 선도국

### 지역별 혁신국가 상위 3개국

#### 유럽

- 1 스위스
- 2 스웨덴
- 3 영국

#### 북미

- 1 미국
- 2 캐나다

#### 중남미

- 1 칠레
- 2 브라질 ☆
- 3 멕시코 ↓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 1 인도
- 2 이란
- 3 우즈베키스탄 ☆

####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 1 대한민국
- 2 싱가포르
- 3 중국

#### 북아프리카, 서아시아<sup>†</sup>

- 1 이스라엘
- 2 아랍에미리트
- 3 튀르키예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p>\*</sup>

- 1 남아프리카공화국
- 2 보츠와나 ☆
- 3 케냐 ↓

### 소득 그룹별 혁신국가 상위 3개국

#### 고소득

- 1 스위스
- 2 미국 ↑
- 3 스웨덴 ↓

#### 중상위소득

- 1 중국
- 2 불가리아
- 3 말레이시아

#### 중하위소득

- 1 인도 ↑
- 2 베트남 ↓
- 3 이란 ☆

#### 저소득

- 1 르완다
- 2 마다가스카르 ☆
- 3 에티오피아 ☆

☆ 는 2022년 상위 3위권 국가로의 신규 진입을 나타냄.

↑↓ 는 2021년 대비 상위 3위권 내의 순위 이동(상승 또는 하락)을 나타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상위 3개국(도서국 제외). 이 지역 상위 4개국(도서국 포함): 모리셔스(1위), 남아프리카공화국(2위), 보츠와나(3위), 케냐(4위).

†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의 상위 3개국(도서국 제외). 이 지역 상위 4개국(도서국 포함): 이스라엘(1위), 키프로스(2위), 아랍에미리트(3위), 튀르키예(4위).

출처: 글로벌 혁신지수 데이터베이스, WIPO, 2022.

비고: 세계은행 소득 그룹 분류(2021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GII 순위 변동은 성과 및 방법론적 고려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음. 일부 국가의 데이터는 불완전함(부록 1 참조).

**박스 1** 미국은 다수의 핵심 혁신지표를 선도한다.  
싱가포르, 중국, 홍콩(중국),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미국은 GII 혁신지표 81개 중 2021년보다 2개 더 많은 15개 지표에서 전 세계 1위에 올라 1위의 혁신지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여전히 이 부문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기업 R&D 투자, 벤처캐피탈 투자, 국내 대학의 질, 국내 과학출판물(H-지수)의 질과 영향력, 특허 출원건수,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출 및 기업 무형자산 집중도 지표에서 세계 1위이다.

싱가포르는 정부 효율성, ICT 접근성, 벤처캐피탈 투자건수, 하이테크제품의 제조업 생산액 및 깃허브 커밋 수 등 2021년보다 1개 더 많은 11개의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미국의 뒤를 따르고 있다. 중국, 홍콩(중국), 이스라엘은 각각 상표 출원건수, 하이테크제품 수입액, 총 연구개발비 지표에서 1위를 획득하며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들 다음으로 몰타가 6위를 차지하면서 합작 투자 및 전략적 제휴 건수에서 선두에 섰다. 대한민국은 7위를 기록하며 연구원 수 지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일본과 키프로스는 패밀리 특허건수와 모바일앱 개발 지표에서 1위에 올라 공동 8위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는 각각 PCT 출원건수, 창업 기업 수 및 ICT 사용성 지표에서 선두를 달리며 공동 10위에 올랐다.

**박스 표 1** 2022년 1위 GII 지표 최다 보유 국가

국가	최고 득점 혁신 지표 수		합계
	투입	산출	
미국	9	6	15
싱가포르	8	3	11
중국	3	6	9
홍콩(중국)	6	3	9
이스라엘	7	2	9
몰타	4	4	8
대한민국	4	3	7
일본	3	3	6
키프로스	4	2	6
스위스	2	3	5
에스토니아	4	1	5
아이슬란드	3	2	5

출처: 글로벌 혁신지수 데이터베이스, WIPO, 2022.

비고: GII 방법론에 따르면, 여러 국가가 한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음. 국가별 개요(Economy profiles) 및 부록 I 참조.

## 변화하는 글로벌 혁신 지형

### 중간소득 국가인 중국, 튀르키예, 인도가 혁신 지형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외 이란과 인도네시아 등도 우수한 잠재력을 보여 주고 있다.

중간소득 그룹 선도국인 중국, 불가리아, 말레이시아 이외에도, 이 그룹의 튀르키예(37위)와 인도(40위)가 상위 40개국에 진입했다. 태국(43위), 모리셔스(45위), 러시아(47위), 베트남(48위), 루마니아(49위)가 상위 50개국에 진입했으나, 올해 순위 상승국은 모리셔스뿐이다.

중간소득 그룹에서는, 이란(53위)과 인도네시아(75위)의 순위는 올해를 포함하여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게 상승했고, 튀르키예, 베트남, 필리핀(59위)과 함께 글로벌 혁신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잠재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모로코(67위)의 경우 수년간 혁신 잠재력을 보여 왔던 한편, 파키스탄(87위)과 캄보디아(97위)도 혁신 잠재력이 향상되는 조짐을 보여 주기 시작했다.

인도는 베트남을 추월하면서 중하위소득 그룹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표 1). 또한, ICT 서비스 수출액(1위) 지표에서 계속해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 유치액(6위),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8위), 이공계 졸업생(11위), 노동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12위), 국내 산업 다각화(14위) 등의 기타 지표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0개국 이외에 방글라데시(102위), 미얀마(116위), 에티오피아(117위)는 종합 순위가 9 내지 14 계단 상승하며 가장 큰 진전을 보여 주었다. 방글라데시는 창의적 성과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는 한편, 에티오피아는 지식 및 기술 성과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노동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6위)과 실용신안(19위) 지표를 선도한다.

르완다(105위)는 하위소득 그룹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마다가스카르(106위)와 에티오피아(117위)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1). 타지키스탄의 종합 순위는 104위이며, 새롭게 합류한 중하위소득 그룹에서 22위에 올랐다.

표 1 소득 그룹별 상위 10개국(순위)

순위	글로벌 혁신지수 2022	순위	글로벌 혁신지수 2022
<b>고소득 국가(총 48개국)</b>		<b>중상위소득 국가(총 36개국)</b>	
1	스위스 (1)	1	중국 (11)
2	미국 (2)	2	불가리아 (35)
3	스웨덴 (3)	3	말레이시아 (36)
4	영국 (4)	4	튀르키예 (37)
5	네덜란드 (5)	5	태국 (43)
6	대한민국 (6)	6	모리셔스 (45)
7	싱가포르 (7)	7	러시아 (47)
8	독일 (8)	8	루마니아 (49)
9	핀란드 (9)	9	브라질 (54)
10	덴마크 (10)	10	세르비아 (55)
<b>중하위소득 국가(총 36개국)</b>		<b>저소득 국가(총 12개국)</b>	
1	인도 (40)	1	르완다 (105)
2	베트남 (48)	2	마다가스카르 (106)
3	이란 (53)	3	에티오피아 (117)
4	우크라이나 (57)	4	우간다 (119)
5	필리핀 (59)	5	부르키나파소 (120)
6	모로코 (67)	6	토고 (122)
7	몽골 (71)	7	모잠비크 (123)
8	튀니지 (73)	8	니제르 (125)
9	인도네시아 (75)	9	말리 (126)
10	우즈베키스탄 (82)	10	예멘 (128)

출처: 글로벌 혁신지수 데이터베이스, WIPO, 2022.

## 기대 이상의 혁신 성과국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기대 이상의 혁신 성과를 보이고 있다.**

GII 2022에 따르면, 26개국이 발전 수준 대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GII 혁신 달성국이다(도 3, 표 2).

인도, 케냐, 몰도바, 베트남은 12년 연속 혁신 달성국으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는 평균 이하를 기록한 인프라 부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혁신 부문에서 중상위소득 그룹의 평균 이상의 혁신 성과를 기록했다. 케냐(88위)는 제도, 기업 고도화, 지식 및 기술 성과, 창의적 성과 부문에서 해당 소득그룹의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베트남은 모든 부문에서 중하위소득 그룹 평균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고 있고, 인적자본 및 연구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는 중상위소득 그룹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고 있다.

그러나, 올해 변화도 있었다. 인도네시아(75위), 우즈베키스탄(82위), 파키스탄(87위)이 2022년 처음으로 혁신 달성국이 되었다. 이 3개국의 경우, 이러한 혁신 달성은 4 내지 12 계단이 오르는 주요 순위 변동과 함께 일어났다. 또한, 자메이카(76위), 요르단(78위), 짐바브웨(107위), 모잠비크(123위), 부룬디(130위) 모두 2022년 혁신 달성국 그룹에 재진입했다. 브라질(54위), 이란(53위), 페루(65위)는 혁신 달성국으로서의 지위를 2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이 3개국은 순위에서 3 내지 7 계단 상승했는데 브라질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상승세이다. 브라질은 2022년 혁신 산출부문, 특히 상표 출원건수(19위) 및 모바일 앱 개발(34위) 지표뿐만 아니라 무형자산 및 온라인 창의성 지표를 포함한 창의적 성과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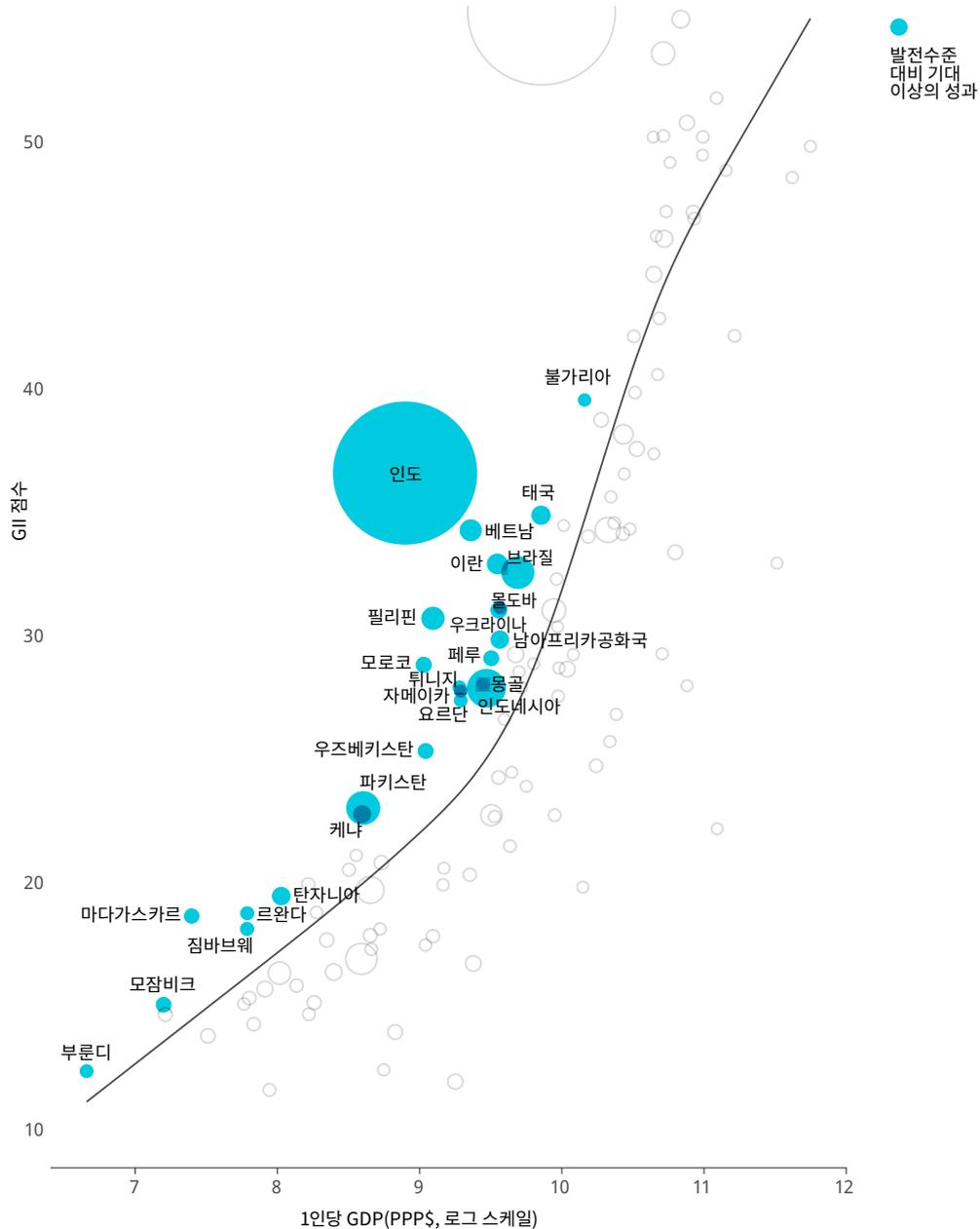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국가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전체 국가 중 8개국).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 2위(5개국),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이 3위(4개국)를 기록하였고, 유럽,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중남미 지역은 공동 4위(각 3개국)에 올랐다.

이와 달리, 41개국의 혁신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이 중 4개국은 유럽연합(EU) 국가인 리투아니아(39위), 그리스(44위), 슬로바키아(46위), 루마니아(49위)이다. 중상위소득 그룹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아르헨티나(올해 4계단 상승에도 불구하고, 69위), 파나마(81위), 도미니카공화국(90위), 파라과이(91위),

에콰도르(98위), 과테말라(110위) 6개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중하위소득 그룹에서는 14개국 이 발전 수준 대비 기대 이하의 혁신 성과를 보였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인 코트디부아르(109위), 나이지리아(114위), 잠비아(118위), 카메룬(121위), 베냉(124위), 앙골라(127위), 모리타니(129위)가 여기에 속한다.

2021년과 비교해서는 27개국의 성과 그룹에 변화가 있었다. 그 중 스리랑카(85위), 방글라데시(102위), 에티오피아(117위), 예멘(128위) 4개국이 기대 이하의 성과 그룹에서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 그룹으로 상승했다. 이와 달리, 12개국은 기대에 부합하는 성과 그룹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 그룹으로 변동되었는데, 이 중 절반은 중남미 국가인 우루과이(64위), 파라과이(91위), 에콰도르(98위), 엘살바도르(100위), 과테말라(110위), 온두라스(113위)이다.

### 도3 혁신과 발전 간 긍정적인 연관성



출처: 글로벌 혁신지수 데이터베이스, WIPO, 2022.

비고: 인구 규모에 따른 버블 크기. 추세선은 GII 2022에서 다른 모든 국가의 1인당 GDP에서 예상되는 혁신 성과 수준을 보여 줌.

표 2 2022년 혁신 달성국: 소득 그룹, 지역, 혁신 달성 연도

국가	소득 그룹	지역	혁신 달성 연도 (총 횟수)
인도	중하위소득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2011-2022 (12)
케냐	중하위소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1-2022 (12)
몰도바	중상위소득	유럽	2011-2022 (12)
베트남	중하위소득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2011-2022 (12)
몽골	중하위소득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2011-2015, 2018-2022 (10)
르완다	저소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2, 2014-2022 (10)
우크라이나	중하위소득	유럽	2012, 2014-2022 (10)
모잠비크	저소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2, 2014-2020, 2022 (9)
태국	중상위소득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2011, 2014-2015, 2018-2022 (8)
불가리아	중상위소득	유럽	2015, 2017-2018, 2020-2022 (6)
마다가스카르	저소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6-2018, 2020-2022 (6)
요르단	중상위소득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11-2015, 2022 (6)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상위소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8-2022 (5)
모로코	중하위소득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15, 2020-2022 (4)
필리핀	중하위소득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2019, 2020-2022 (4)
튀니지	중하위소득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2018, 2020-2022 (4)
탄자니아	중하위소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7, 2020-2022 (4)
부룬디	저소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7, 2019, 2022 (3)
브라질	중상위소득	중남미	2021-2022 (2)
이란	중하위소득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2021-2022 (2)
페루	중상위소득	중남미	2021-2022 (2)
자메이카	중상위소득	중남미	2020, 2022 (2)
짐바브웨	중하위소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12, 2022 (2)
인도네시아	중하위소득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2022 (1)
우즈베키스탄	중하위소득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2022 (1)
파키스탄	중하위소득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2022 (1)

출처: 글로벌 혁신지수 데이터베이스, WIPO, 2022.

비고: 소득 그룹 분류는 세계은행 소득 그룹 분류를 따름(2021년 6월). 지리적 지역은 UN 발행물인 통계용 표준 국가 또는 지역 코드(M49)에 부합함.

## 지속되는 지역별 혁신 격차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는 북미 및 유럽과의 혁신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히고 있다.**

올해에도 혁신 성과에 대한 지역별 순위 변화는 없었다. 북미와 유럽지역이 계속 선두를 지키고 있고,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더 큰 격차를 두고 그 뒤를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중남미,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순서대로 잇고 있다.<sup>1</sup>

### 북미

미국과 캐나다로 구성된 북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역이다. 이 두 국가는 올해 한 계단 순위가 상승해 각각 2위와 15위에 올랐다. 이 지역은 전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GII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둔 곳이다. 미국은 시장 고도화(세계 1위), 기업 고도화(3위), 지식 및 기술 성과(3위) 부문에서 최고의 성과를 보여 주었다.

캐나다는 2012년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후, 2016년 이래 최고의 순위(15위)를 달성하며 다시 상위 15개국에 진입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벤처캐피탈 유치건수(1위), 합작투자 및 전략적 제휴 건수(1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출(3위) 지표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 유럽

유럽지역은 상위 25개국에 총 15개국이 포함되어 여전히 가장 많은 혁신 선도국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의 39개국 중 12개국이 올해 순위 상승을 보여 주었는데, 네덜란드(5위), 독일(8위), 오스트리아(17위), 에스토니아(18위), 룩셈부르크(19위), 몰타(21위), 이탈리아(28위), 스페인(29위), 폴란드(38위), 그리스(44위), 몰도바(56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70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스위스는 유럽지역의 제도 부문(세계 2위)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고, 지식 및 기술 성과와 창의적 성과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혁신 산출 부문에서 이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선도국이 되었다. 독일은 인적자본 및 연구(2위) 부문을 선도하고 있고, 스웨덴은 인프라와 기업 고도화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양 부문 1위).

에스토니아(18위)는 시장 고도화(3위) 부문에서 이 지역 선두를 달리며, 온라인 참여(1위), 벤처캐피탈 유치건수(1위), ICT 서비스 수입액(1위), 창업 기업수(1위), 정부 온라인 서비스(2위), 창업활동 정책 및

문화(3위), 모바일앱 개발(6위),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7위), 환경 성과(14위) 지표에서 글로벌 선도국 자리를 차지했다.

####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SEAO) 지역은 북미 및 유럽과의 혁신 성과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히고 있다. SEOA 지역의 7개국이 글로벌 혁신 선도국들이며, 여기에는 대한민국(6위), 싱가포르(7위), 중국(11위), 일본(13위), 홍콩(중국)(14위), 뉴질랜드(24위), 호주(25위)가 포함된다. 이들 중 싱가포르, 중국, 뉴질랜드는 올해 순위가 상승했다. 이 지역 선도국 중 중국, 대한민국, 일본은 지난 10년간 가장 큰 순위 상승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2012년 21위를 기록했고 2020년 상위 10개국에 진입, 2022년에는 6위까지 올랐다. 일본은 2012년 25위에서 상위 10개국에 접근했고, 올해에도 기존의 13위를 유지했다. 중국은 2012년 34위를 기록했고, 2016년 혁신 선도국에 합류한 이후 올해까지 매년 꾸준히 순위가 상승, 2022년에는 11위로 상위 10개국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이 지역 전체에서는 베트남(48위), 필리핀(59위), 인도네시아(75위), 캄보디아(97위), 라오스(112위)가 20계단 이상 상승하면서 지난 10년간 가장 큰 순위 상승을 보였다. 이들 국가는 핵심 혁신지표에서도 지속적으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하이테크제품 수입액 지표에서 세계 1위이고, 필리핀은 하이테크제품 수출액 지표에서 2위, 인도네시아는 창업활동 정책 및 문화 지표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75위)는 2012년 100위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크게 도약했고, 올해 혁신연계 및 무형자산 지표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며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4위), 클러스터 발전 정도(9위), 산학 R&D 협력(13위), 기업 무형자산 집중도(13위) 지표에서 우수 성과를 보여 주었다.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2015년 81위, 2021년 46위 이후, 순위가 더 상승하며 올해 40위에 올라 이 지역을 계속 선도하고 있다. 이란은 2012년 104위에서 눈에 띄게 향상되어 53위까지 순위가 오르면서 다시 한번 이 지역 2위를 차지했고, 글로벌 혁신 지형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춘 중간소득 국가로서 자리매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82위를 기록하며 이 지역 3위로 순위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은 이 지역 4위로 밀려나면서 세계 83위를 차지했다.

스리랑카(85위), 파키스탄(87위), 방글라데시(102위)는 올해 눈에 띄게 순위가 상승했다. 그러나, 파키스탄만이 꾸준히 순위를 상승시키고 있고(2012년 133위), 스리랑카는 순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올해야 비로소 2015년 기록했던 85위를 회복했다. 방글라데시는 창의적 성과 부문의 무형자산, 온라인 창의력 지표에서 성장이 뚜렷이 나타났고, 특히 기업 무형자산 집중도(26위) 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스라엘(16위)이 이 지역 전체에서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연속 혁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스라엘은 시장 고도화(7위), 기업 고도화(6위), 지식 및 기술 성과(7위) 부문에서 이 지역을 선도했고, 벤처캐피탈 거래, 고학력 여성 고용, PCT 출원건수 및 ICT 서비스 수출액 지표 모두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선도국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박스 1 참조). 또한, 이스라엘은 GDP의 5% 이상을 R&D 부문에 지출하는 유일한 국가로, 2020년에는 지출 비율이 5.4%에 달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올해 크게 도약하여 31위에 올랐고 상위 30개국에 근접했다. 튀르키예는 37위를 차지하면서 상위 40개국으로 진입했다. 튀르키예는 창의적 성과(15위) 부문에서 이 지역 1위를 차지했고, 무형자산 지표인 디자인 출원건수(1위), 상표 출원건수(6위), 무형자산 집중도(15위)에서 세계 4위에 올라 글로벌 선도국이 되었다. 최근 성과를 고려할 때, 중간소득 국가인 튀르키예는 향후 몇 년간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혁신 성과의 성장을 거둘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추가로 10개국의 순위가 상승했는데,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51위), 카타르(52위), 쿠웨이트(62위), 모로코(67위), 바레인(72위)이 특히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표 3 히트맵: 2022년 GII 종합 및 부문별 순위

국가	GII 종합 순위	제도	인적자본 및 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지식 및 기술 성과	창의적 성과
스위스	1	2	4	4	8	7	1	1
미국	2	13	9	19	1	3	3	12
스웨덴	3	19	3	1	13	1	2	8
영국	4	24	6	8	5	22	8	3
네덜란드	5	4	14	14	18	10	5	10
대한민국	6	31	1	13	21	9	10	4
싱가포르	7	1	7	11	4	2	13	21
독일	8	20	2	23	14	19	9	7
핀란드	9	11	8	3	17	5	4	18
덴마크	10	9	10	5	15	15	12	14
중국	11	42	20	25	12	12	6	11
프랑스	12	18	15	17	10	17	15	6
일본	13	21	21	12	9	8	11	19
홍콩(중국)	14	10	13	6	2	27	60	5
캐나다	15	15	12	30	6	20	24	20
이스라엘	16	41	24	42	7	6	7	36
오스트리아	17	8	11	9	38	18	19	26
에스토니아	18	12	34	10	3	25	21	24
룩셈부르크	19	5	32	40	31	4	33	9
아이슬란드	20	14	29	22	41	14	22	13
몰타	21	28	42	27	33	16	32	2
노르웨이	22	3	19	2	28	21	25	30
아일랜드	23	16	23	15	55	13	14	29
뉴질랜드	24	7	18	21	24	31	29	22
호주	25	17	5	18	20	24	37	27
벨기에	26	29	16	37	45	11	18	32
키프로스	27	36	39	28	29	23	20	17
이탈리아	28	58	28	26	35	33	16	16
스페인	29	38	26	16	30	32	27	28
체코	30	43	33	20	76	28	17	37
아랍에미리트	31	6	17	7	23	26	59	45
포르투갈	32	47	22	39	42	34	35	25
슬로베니아	33	37	25	24	68	29	26	56
헝가리	34	48	37	35	67	30	23	46
불가리아	35	67	68	34	62	40	30	23
말레이시아	36	34	38	51	26	41	39	41
튀르키예	37	101	41	48	37	47	47	15
폴란드	38	65	36	43	61	38	38	38
리투아니아	39	26	44	45	32	37	48	47
인도	40	54	43	78	19	54	34	52
라트비아	41	35	48	52	65	36	44	42
크로아티아	42	77	46	31	56	46	45	39
태국	43	78	71	54	27	43	43	49
그리스	44	69	31	46	64	55	46	54
모리셔스	45	22	66	70	16	96	82	31
슬로바키아	46	68	59	41	70	45	28	70
러시아	47	89	27	62	48	44	51	48
베트남	48	51	80	71	43	50	52	35
루마니아	49	75	74	33	63	51	31	57
칠레	50	39	57	47	46	57	54	55
사우디아라비아	51	50	30	53	22	53	65	66
카타르	52	25	56	29	47	73	69	59
이란	53	131	54	75	11	115	50	33
브라질	54	102	50	65	49	35	55	51
세르비아	55	53	52	38	83	65	42	76
몰도바	56	98	62	84	58	79	49	43
우크라이나	57	97	49	82	102	48	36	63
멕시코	58	93	58	63	54	76	58	50
필리핀	59	90	86	81	78	39	41	58
몬테네그로	60	59	61	44	53	58	72	71
남아프리카공화국	61	81	81	77	39	63	56	64
쿠웨이트	62	86	55	36	73	101	68	60
콜롬비아	63	72	79	59	66	42	67	75
우루과이	64	32	73	60	77	62	62	85
페루	65	61	47	79	40	49	90	65
북마케도니아	66	88	75	49	34	59	57	93

4 분위(최고 성과국, 1~33위)

3 분위(34~66위)

2 분위(67~99위)

1 분위(100~132위)

표 3 GII 종합 및 부문별 순위(계속)

국가	GINI 종합 순위	제도	인적자본 및 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지식 및 기술 성과	창의적 성과
모로코	67	85	83	89	74	94	64	44
코스타리카	68	44	77	66	88	60	61	81
아르헨티나	69	96	69	64	95	52	77	5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70	94	67	55	25	98	63	83
몽골	71	76	64	92	97	61	85	40
바레인	72	27	78	32	75	93	73	98
튀니지	73	92	45	85	98	116	53	61
조지아	74	30	70	83	72	64	75	86
인도네시아	75	71	90	68	36	92	78	72
자메이카	76	56	84	99	110	67	89	34
벨라루스	77	130	35	67	96	72	40	91
요르단	78	45	76	100	52	75	76	78
오만	79	57	40	56	71	97	94	80
아르메니아	80	55	91	80	85	84	71	73
파나마	81	70	94	50	89	105	86	62
우즈베키스탄	82	63	65	74	60	74	80	102
카자흐스탄	83	52	60	58	90	68	81	118
알바니아	84	84	89	57	91	56	96	82
스리랑카	85	119	120	73	108	71	66	69
보츠와나	86	40	51	88	112	70	88	100
파키스탄	87	118	113	114	100	81	70	67
케냐	88	82	119	107	111	80	74	79
이집트	89	111	97	93	86	103	79	84
도미니카공화국	90	80	108	69	84	83	93	88
파라과이	91	115	100	76	82	86	105	74
브루나이 다루살람	92	23	53	61	101	66	127	125
아제르바이잔	93	46	87	90	80	77	117	105
키르기스스탄	94	113	63	86	51	107	92	121
가나	95	100	101	96	119	88	103	77
나미비아	96	49	72	106	81	108	113	113
캄보디아	97	87	99	103	44	117	101	104
에콰도르	98	121	98	72	103	85	102	96
세네갈	99	60	103	105	69	124	97	112
엘살바도르	100	107	107	97	99	87	108	90
트리니다드 토바고	101	66	88	87	123	102	87	117
방글라데시	102	109	127	94	92	125	95	87
탄자니아	103	74	126	104	79	112	114	94
타지키스탄	104	91	85	121	94	128	84	116
르완다	105	33	106	95	115	113	111	126
마다가스카르	106	120	105	132	109	118	115	68
짐바브웨	107	128	92	126	114	90	99	89
니카라과	108	124	110	111	50	82	121	103
코트디부아르	109	73	122	98	122	95	104	108
과테말라	110	122	121	119	107	89	91	99
네팔	111	117	123	108	59	91	119	101
라오스	112	103	111	118	57	104	122	114
온두라스	113	125	96	101	104	78	110	120
나이지리아	114	112	109	112	126	69	123	97
알제리	115	99	82	102	125	120	118	109
미얀마	116	123	102	128	93	130	100	106
에티오피아	117	110	131	123	113	122	83	115
잠비아	118	126	118	116	106	100	116	110
우간다	119	62	129	109	127	126	106	123
부르키나파소	120	105	104	115	118	123	112	127
카메룬	121	104	116	113	132	99	98	124
토고	122	108	117	117	105	129	126	111
모잠비크	123	129	114	91	120	121	120	107
베냉	124	64	115	110	117	114	129	132
니제르	125	79	130	129	116	106	109	131
말리	126	114	128	125	124	110	107	122
앙골라	127	116	125	122	121	131	130	92
예멘	128	132	124	120	87	127	124	95
모리타니	129	83	112	127	129	111	132	130
부룬디	130	106	95	130	130	119	128	128
이라크	131	127	93	124	128	132	125	129
기니	132	95	132	131	131	109	131	119

4 분위(최고 성과국, 1-33위)

3 분위(34-66위)

2 분위(67-99위)

1 분위(100-132위)

출처: 글로벌 혁신지수 데이터베이스, WIPO, 2022.

## 중남미

중남미 지역에서는 칠레(50위)가 상위 50개국에 다시 진입했고, 브라질은 54위를 차지하며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멕시코는 58위로 상위 60개국 내에 머물고 있지만 작년보다 3계단 하락하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 지역 18개국 중 8개국의 순위가 상승했고, 그 중 콜롬비아(63위), 페루(65위), 아르헨티나(69위)가 가장 눈에 띄게 상승하여 상위 70개국 내로 모두 진입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다소 완만한 상승이었다. 지난 10년간 멕시코, 페루, 자메이카(76위)만이 10계단 이상 순위가 상승했고 지난 5년간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순위가 급상승했다.

우루과이는 제도(32위) 부문에서 이 지역 선두에 섰고, 페루는 인적 자본 및 연구(47위)와 시장 고도화(40위) 부문, 칠레는 인프라(47위)와 지식 및 기술 성과(54위) 부문의 선두를 이끌었다. 브라질은 기업 고도화(35위) 부문에서 이 지역 1위다.

카리브해 국가들 중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만이 (발전 수준 대비 기대 이하의 성과가 계속 되었음에도) 90위로 상승했다. 2022년 자메이카는 상표 출원건수(9위)와 디자인 출원건수(14위) 지표를 포함한 창의적 성과(34위) 부문에서 이 지역 1위 자리에 올랐다.

또한, 페루, 브라질, 자메이카는 올해 발전 수준 대비 기대 이상의 혁신 성과를 보였다(표 2). 이와 달리, 중남미 6개국은 성과 하락으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며 발전 수준 대비 기대 이하의 낮은 성과를 보여, 이 지역 내의 혁신 성과 정체 가능성을 보였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모리셔스(45위)와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만이 상위 80개국에 올랐고, 다른 5개국은 올해 상위 100개국에 진입했는데, 보츠와나(86위), 케냐(88위), 가나(95위), 나미비아(96위), 세네갈(99위)이 여기에 속한다(표 4). 16개국은 GII 순위가 상승했는데, 모리셔스, 보츠와나, 가나, 세네갈, 짐바브웨(107위), 에티오피아(117위), 앙골라(127위)가 가장 눈에 띈다. 부룬디(130위)는 2019년 GII에서 128위를 기록한 이후, 향상된 데이터 가용성에 힘입어 올해 GII에 복귀했다. 모리타니는 129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GII에 합류하였다.

모리셔스는 제도(22위), 인프라(70위), 시장 고도화(16위), 창의적 성과(31위) 부문에서 지역 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벤처캐피탈 거래(1위) 지표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상표 출원건수(15위), ICT 서비스 수입액(20위), 창업 기업 수(20위) 지표에서도 큰 성과를 보였다. 보츠와나는 인적자본 및 연구(51위) 부문에서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지출 교육비(2위), 창업 기업 수(4위), 소액금융기관 대출(15위),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액(22위)을 포함한 지표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 주었다. 나미비아는 정부지출 교육비(1위) 지표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인적자본 및 연구 부문에서 이 지역 평균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업 고도화(63위)와 지식 및 기술 성과(56위) 부문에서 이 지역 선도국이다.

표 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GII 2022 순위

순위	상위 80위권	순위	상위 100위권	순위	상위 110위권	순위	상위 120위권	순위	기타
45	모리셔스	86	보츠와나	103	탄자니아	114	나이지리아	121	카메룬
61	남아프리카공화국	88	케냐	105	르완다	117	에티오피아	122	토고
		95	가나	106	마다가스카르	118	잠비아	123	모잠비크
		96	나미비아	107	짐바브웨	119	우간다	124	베냉
		99	세네갈	109	코트디부아르	120	부르키나파소	125	니제르
								126	말리
								127	앙골라
								129	모리타니
								130	부룬디
								132	기니

출처: 글로벌 혁신지수 데이터베이스, WIPO, 2022.

## 균형 있고 효율적인 혁신 생태계 창출

다수 국가는 여전히 혁신 투입을 산출로 효율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혁신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데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고소득 그룹 국가 중 스위스(1위)는 미국(2위), 스웨덴(3위), 싱가포르(7위) 등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혁신 투입으로 이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혁신 산출 성과를 거두었다(도 4). 독일(8위)은 미국과 네덜란드(5위)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의 혁신 투입으로 이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의 혁신 산출 성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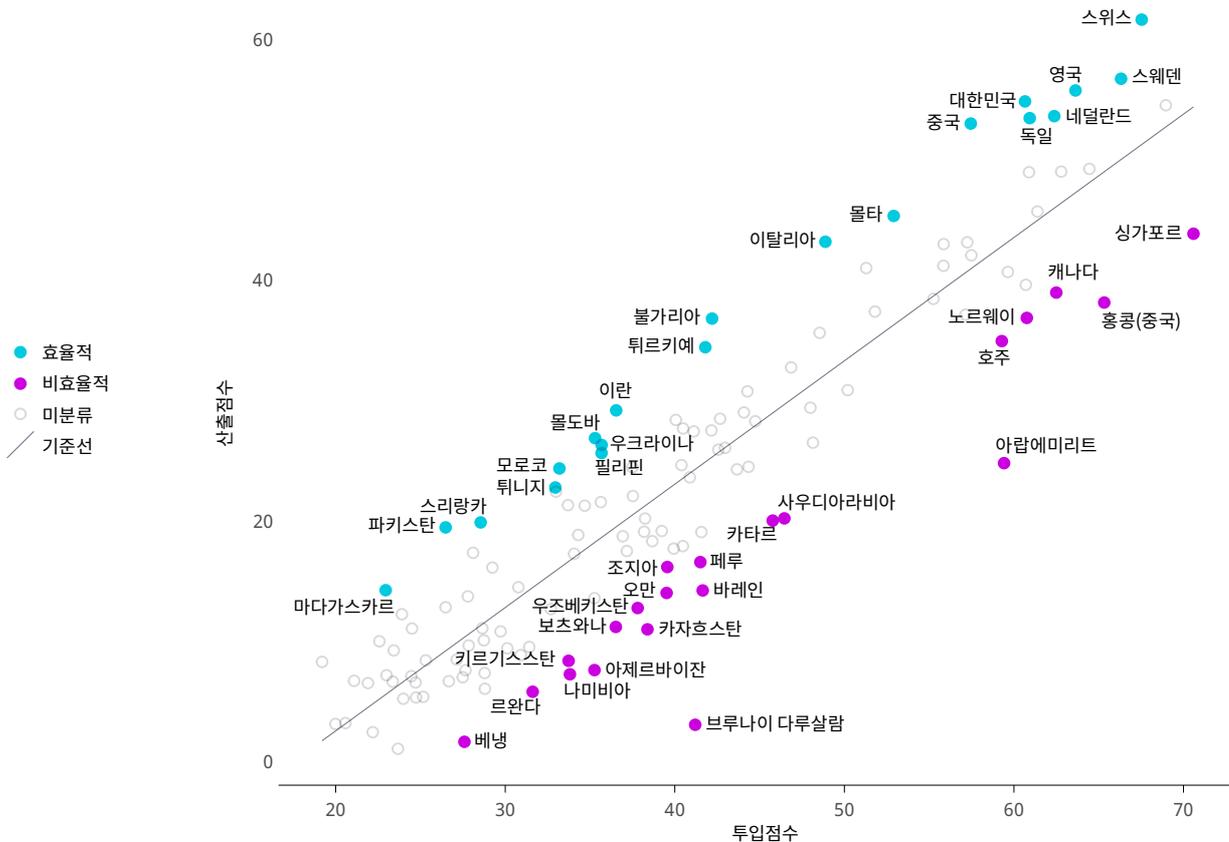
중상위소득 그룹 국가 중 중국(11위)은 혁신 산출 지수에서 전체 8위를 기록했고, 네덜란드와 독일과 같은 고소득 국가보다 혁신 투입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에 견줄 만한 산출 성과를 보였다. 튀르키예(37위)는 호주(25위)와 같은 고소득 국가에 비해 적은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에 비견할 만한 수준의 산출 성과를 얻었다.

중하위소득 그룹 국가 중 이란(53위)은 고소득의 유럽 국가인 라트비아(41위)와 크로아티아(42위)에 견줄 만한 수준의 혁신 산출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필리핀(59위)은 리투아니아(39위) 및 그리스(44위)에 비해 낮은 수준의 혁신 투입으로 이들 국가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혁신 산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러 고소득 국가들은 혁신 투자와 성과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전반적인 혁신 성과는 그리 좋지 못하다.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캐나다(15위), 노르웨이(22위), 아랍에미리트(31위), 사우디아라비아(51위), 바레인(72위), 브루나이 다루살람(92위)이 이 그룹에 포함된다. 혁신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국가들에는 싱가포르(7위), 호주(25위), 우즈베키스탄(82위), 르완다(105위)가 있다.

상위 25개국(혁신 선도국) 중 캐나다는 올해 더욱 생산적으로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켜 그 균형을 개선시킨 결과, GII 상위 15개국에 재진입했다.

도 4 2022년 혁신 투입 대 산출



출처: 글로벌 혁신지수 데이터베이스, WIPO, 2022.

7개 모든 혁신 부문에서 균형 잡힌 강력한 성과가 혁신 선도국(상위 25개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특히 상위 10개국에 그쳤다. GII 상위 20개국에 속하지 않은 노르웨이, 뉴질랜드를 비롯한 총 15개국만이 7개의 모든 GII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표 3).

일부 국가는 낮은 GII 종합 순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역에서는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루과이(32위)와 르완다(33위)는 제도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바레인(32위)은 인프라 부문에서, 이란(11위), 인도(19위), 말레이시아(26위)는 시장 고도화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슬로바키아(28위)와 루마니아(31위)는 지식 및 기술 성과 부문에서, 튀르키예(15위)는 창의적 성과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국가 간 성과 불균형은 혁신 시스템이 계속 변화하고 역동적이며, 향후 전체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을 암시한다.

## 결론

GII의 목표는 혁신에 관한 통찰력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주요 혁신 발전을 추적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자국의 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GII는 혁신과 관련해 확정적이고 최종적인 국가별 순위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GII는 혁신의 정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와 접근법을 찾고, 각 분야의 개선되는 통계의 가용성과 이론적 발전을 반영하여 이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보다 나은 정보에 기반해 세계 각국이 혁신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올해 GII 보고서는 몇 가지 핵심 통찰을 이끌어 냈다.

- 글로벌 혁신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상위 25위권의 혁신 선도국들 간 변화가 포착되었고, 전체 혁신 순위와 소득 그룹별, 지역별 순위표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i) 올해 상위 15개 혁신국들 간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미국, 싱가포르, 독일, 중국의 순위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 중국이 프랑스를 추월했으며, 캐나다는 혁신 효율성 개선으로 상위 15위권에 재진입했다. (ii) 신흥 혁신 강국인 튀르키예, 인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란의 혁신이 강력하게 진전되는 한편, 베트남과 필리핀의 혁신은 잠시 유보 상태에 머물렀다. (iii)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에서는 혁신 잠재력을 보여 주는 초기 징후가 보였고, 이들 국가는 2022년에 처음으로 발전 대비 우수한 혁신 성과를 거두었다.
- 이러한 변화와 함께 아시아 지역은 북미와 유럽 지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지역 간 혁신 격차, 특히 중남미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혁신 격차는 시급한 관심을 요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단기 영향, 최근의 지정학적 혼란 상황, 긴축 통화 정책,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및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대한 충격이 이제 시작된 중·저소득 국가의 초기 혁신 시스템에 끼칠 여파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에는 개발도상국의 정책입안자, 입법자, 혁신 활동가들이 혁신 시스템과 혁신 정책을 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정치적 의지와 경험이 지속되는 위기로부터 위협받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GII 보고서는 이러한 발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혁신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측정용 촉진함으로써 정책 및 기업 리더들을 돕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비고

- 1 지역 순위는 해당 지역 국가들의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평균 점수에 해당함.

**글로벌 혁신지수(GII) 2022**는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생산성 성장 둔화, 그리고 발전하는 기타 도전 과제들을 배경으로 글로벌 혁신 트렌드를 추적한다.

GII는 132개국의 혁신 성과에 순위를 매기고, 각국의 혁신 강점과 약점을 조명하며, 혁신 메트릭스의 격차를 정확히 짚어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국가를 발표한다.

GII 2022는 3대 핵심 영역인 생산성, 경제 성장, 사회 복지 영역에서 향후 수십 년에 걸쳐 예측되는 혁신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본 보고서는 “침체와 생산성 저성장이 한동안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시대와 딥 사이언스 혁신 물결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이 임박했는가?”라는 질문을 담고 있다.

2007년부터 GII는 새로운 혁신과 경제 정책 전략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이자 혁신 메트릭스 개선을 위한 도구가 되어 왔다. UN 총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2019년과 2021년 결의에서 GII를 믿을 만한 혁신 측정 기준으로 인정했다.

GII는 포틀라스 연구소(Portulans Institute)와 협력하여 발행되며, 학술 네트워크 및 GII 자문 위원회를 비롯해 기업 네트워크 파트너 기관인 인도 산업 연맹(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 브라질 산업 연맹(Brazilian National Confederation of Industry, CNI), 에코페트롤(Ecopetrol), 터키 수출국 총회(Turkish Exporters Assembly, TIM)의 지원을 받는다.

보고서 전문은 [www.wipo.int/global\\_innovation\\_index](http://www.wipo.int/global_innovation_index)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P.O. Box 18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전화: + 41 22 338 91 11  
팩스: + 41 22 733 54 28

WIPO 지역사무소 연락처는 아래 참조.  
[www.wipo.int/about-wipo/en/offices](http://www.wipo.int/about-wipo/en/offices)

© WIPO, 2022



저작자표시 4.0 국제(CC BY 4.0)

CC 라이선스는 이 간행물에 포함된 WIPO 비소유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지: Getty Images / © 3DSculptor;  
© solarseven / © LV4260

WIPO 참조번호 2000/22/ExSum/K  
DOI: 10.34667/tind.46622